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일본의 역사 인식 논쟁과 그 시사점

우수근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외국인 교수)

‘금성교과서’ 문제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한 현대사 영상물 <기적의 역사>,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불을 지피고 나선 역사인식을 둘러싼 이념 논쟁.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일본 사회의 해묵은 논쟁, 하지만 아직도 일본 사회를 심각하게 양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강요’와 이에 대한 ‘저항’이 떠오른다.

역사의 인식과 해석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은 아직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에게도 이미 낯설지 않게 된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역시 역사인식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前)’ 세대와 그 ‘후(後)’ 세대를 양분하여 일컫는 말로써, ‘전전(戰前)세대’나 ‘전후(戰後)세대’, 혹은 단순히 ‘전전(戰前)’이나 ‘전후(戰後)’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을 분기로 해서 그 전에 교육 받은 세대와 그 후에 교육 받은 세대 사이의 역사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사회관 등이 현저히 다른 이질적 특징을 일컫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미군정 치하에서 교육 받고 자라나 전후 세대의 ‘바르지 못한’ 역사관을 우려하고 있는 전전 세대는, 전전에 교육 받은 그들의 역사관이나 국가관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교육지침)을 일선의 교육현장에 하달한다. 이에 대해 전후 세대들은 전전 세대들의 ‘그릇된’ 사고를 비난하며 격렬히 항거한다. 이들은 동일한 전후 교육을 받고 자란 학부모들과 협력하며 일본 사회 전역에서 저항의 연대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일선 교육현장에 전달하며 관철시켜 나가야 하는 학교장들이 자신들의 ‘끼인’ 처지를 비판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역사인식을 바꾸기 위한 일본 정부의 ‘드라이브’와 이에 대항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저지 운동, 그리고 이에 맞서는 또 다른 격렬한 대립 등이 맹렬한 가운데 일본

열도 전역이 심각한 분열과 반목 속에서 ‘역사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치 서로의 주장만이 유일한 정답인 양 소리 높여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역사교과서 논쟁을 보면 일본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일본의 경우는 2차 대전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계기가 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한 각 정권의 상이한 인식에 따라 역사논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대간 단절’이라는 이분(二分)만이 아닌, 동일 세대간 ‘5년 단절’ 혹은 ‘10년 단절’ 등이 반복되며 삼분(三分)을 넘어서 사분오열(四分五裂)까지 우려된다.

역사 앞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겸손해 질 필요가 있다. 설령 인식이 ‘다르다(different)’고 해서 그것이 곧 ‘틀린(wrong)’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옳다는 절대적 역사관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대승적 모습을 지니는 것은 어떨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4.19’에 대해 ‘의거’로 기술했다가 ‘혁명’이라고 바꾸고 이를 다시 ‘데모’로 바꾸며 혼돈에 혼돈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그 보다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모두 밝히며 알려주도록 하자. 이를 통해 우리의 후세들에게 역사에 대한 해석은 관점 및 접근 방법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으며 그 인식 또한 다양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역사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 후세들의 다양성 교육과 사고력 함양에도 활용함으로써 더 한층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일본의 ‘역사 몸살’과 같은 국력 소모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과 접근방법에 대한 이와 같은 제안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너무 타협적이다”와 같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인식에는 항상 ‘1+1=2’와 같은 명료하고 유일한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좀 더 열린 자세에서 작금의 이념논쟁과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그 속에서의 공존과 발전을 추구하려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가가기를 제안해 본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8층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